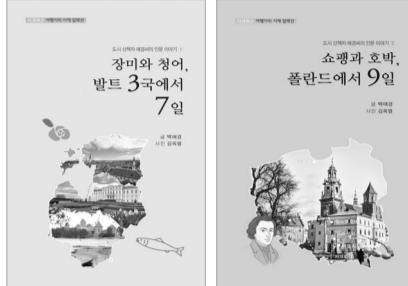


동유럽 발트3국·폴란드 인문여행을 기록하다

장미와 청어, 발트 3국에서 7일
쇼팽과 호박, 폴란드에서 9일

백애경 지음·김옥열 사진



라트비아 룬달레 궁전.

〈다큐북스 제공〉

여행자의 모습도, 여행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누군가는 여행지의 풍경과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누군가는 사진과 글로 꼼꼼히 적는다. 광주의 여행가 백애경 작가는 '기록하는 이'다. 그는 여행하면서 일기를 쓰듯 글을 적어내려간다. 힘든 여정에도 새벽이면 아침없이 일어나 '사명처럼' 여행기를 쓰곤했다. 그는 '여행에 인문적 지식이 버무려지고, 각국의 자연환경이 스며들고,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기'를 쓰고 싶어한다. '순례자처럼 여행하고, 농부처럼 여행기를 쓰고 싶다'는 바람도 품고 있다.

세계 각국을 여행했지만 책으로 묶을 생각이 없었던 그가 여행기 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애를 먹어서다. 여행객들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 다녀온 후 "내가 찾는 내용의 책이 없다면 내가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과물이 '장미와 청어, 발트3국에서 7일'과 '쇼팽과 호박, 폴란드에서 9일'이다.

두 권의 책은 출판사 '다큐북스'가 의뢰적으로 시작하는 '여행자의 서재 컬렉션' 시리즈의 출발이라는 점

에서도 의미가 있다. 더 많은 여행자들이 길에서 만난 풍경과 스토리를 '자신만의 기록'으로 남기고, 새롭게 길을 나서는 여행자들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리즈다.

이번에 나온 두 권의 여행기는 단순 정보를 넘어 역사와 종교, 문화 등 한 국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에 두고 현장을 생생히 안내한다. 두 여행 모두 광주의 인문학 모임 '동고송'과 함께 떠난 기록이다.

'장미와 청어, 발트3국에서 7일'은 작가의 호기심이 가득 담긴 책이다. 유럽 각국을 다녀온 작가에게 '나라 이름'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의 역사와 문화, 풍경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 흥미롭게 다가왔다. 제목에서 언급한 '장미'는 노래 '백만 송이 장미'의 원곡이 라트비아 국가라는 데서, '청어'는 중세 유럽 경제파권의 상징인 발트 산 청어 집산지가 리투아니아였던 데서 따왔다.

인근 러시아나 독일, 프랑스 등 강국들에 박해받은 역사를 공유하는 이들 나라는 중세 유적과 문화를 비교

적 잘 보전하면서 현대적인 변화도 모색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책에는 '발트해의 진주'로 불리는 라트비아의 리가, 호수 위의 신비로운 요새가 인상적인 리투아니아의 트리카이, 공공도서관이 눈길을 사로잡은 에스토니아의 휴양도시 페르누 등 다채로운 도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쇼팽과 호박, 폴란드에서 9일'은 퀴리부인,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나라인 폴란드의 구석 구석을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알려진 오시비엥 침에서 말을 잊은 채 묵묵히 유대인 학살의 흔적을 돌아보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옮겼다. 또 600년간 폴란드의 수도였던 역사도시 크라쿠프, 중세의 계획도시 토룬, 다양한 인간군상들을 묘사한 작은 동상이 인상적인 '난장이의 도시' 브로츠와프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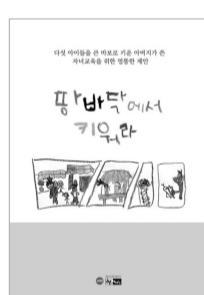
이번 여행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건 광주에서 활동중인 김옥열 다큐사진작가의 작품들이다. 생생한 현장사진과 저자가 써내려간 꿈꿔온 정보와 인문지식은 누군가를 길 위로 불러세운다. 〈다큐북스·각권 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공부보다 인생... '상품' 아닌 '작품'으로 자녀 키워라

땅바닥에서 키워라

박형동 지음



음이다.

그러나 제목이 시사하는 것은 결핍의 힘, 인내의 힘이다. 다섯 아이를 모두 '큰 바보'로 키운 저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시행착오 등이 담겨 있다.

저자는 아이들을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는 "상품은 같은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그 상품은 유행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다"며 "신의 직장"이나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50대를 지나면 퇴직하게 되고 그 후엔 실업자가 되거나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상품으로서의 인생이다"고 했다.

이와 달리 "명품은 유행을 별로 타지 않는다. 작품은 세상에서 유일하다. 오직 자기만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중고품이나 폐품이 되지만 작품은 오래될수록 골동품이 되어 그 가치는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공부하고 싶게 하라고 강조한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진다는

얘기다. "강압과 강제로 이기려 하지 말고 살펴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욕을 북돋아 줄 일"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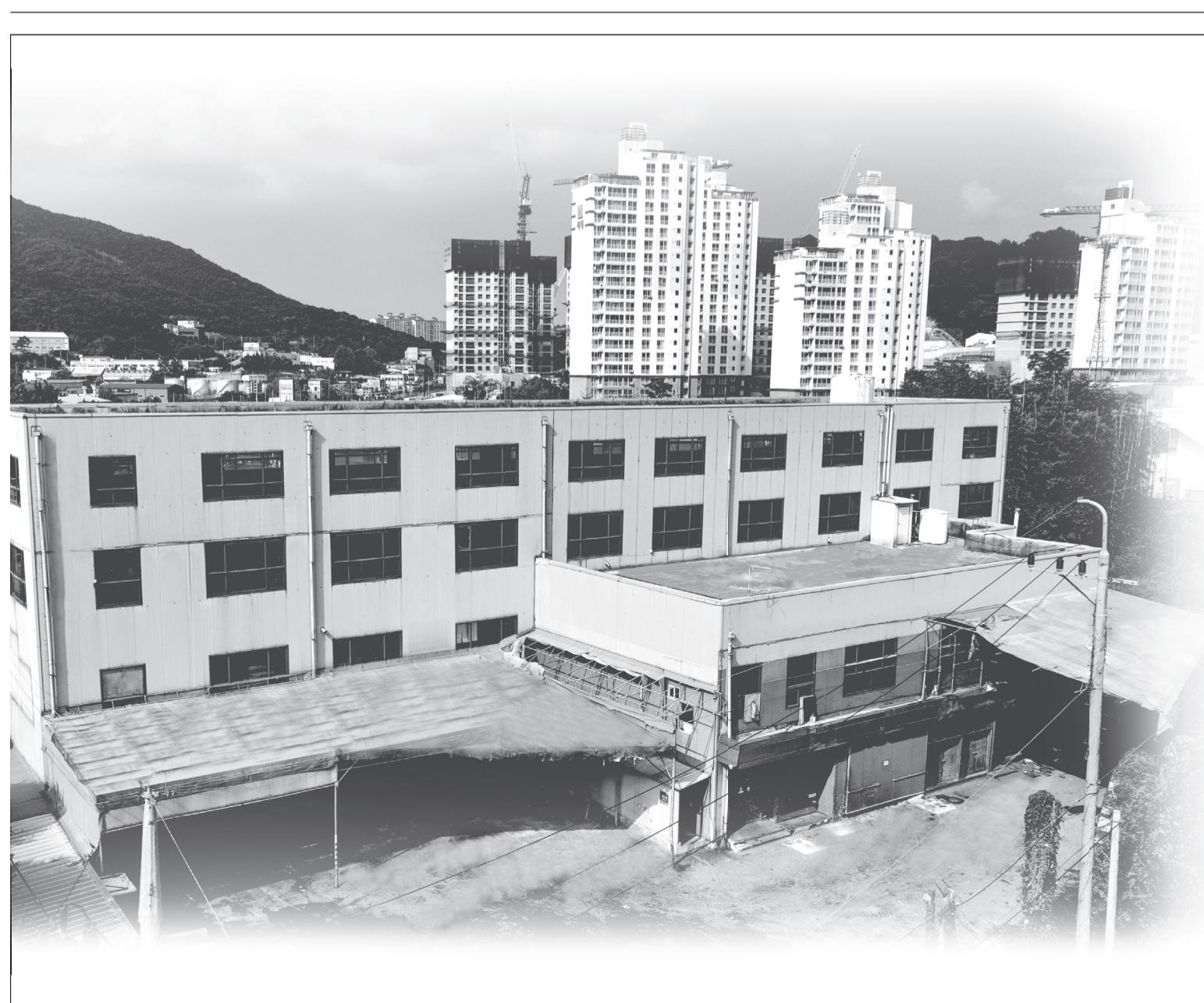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언하는 부분도 있다. 저자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공부하는 자가 노력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해가는 것이다"며 "노력해 되기 위해 맞는 방법을 찾아가며 해야 할 일이다"고 언급했다.

모두 20편의 글들은 전술하면서도 경험에 근거한 내용들로 잔잔한 울림을 준다. '이름값을 하게 하라', '엉뚱한 아이로 키워라',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마라', '부모가 스승이다', '돌짝발에 심은 눈물의 씨앗' 등의 글들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번쯤 읽었음직한 내용들이다.

한편 전남문화 회장을 역임한 박 시인은 전남문화상, 김현승문학상을 수상했다. '아내의 뒷모습', '껍딱과 알강' 등 모두 7편의 시집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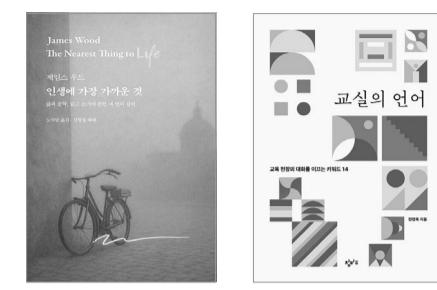
〈한림·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제임스 우드 지음, 노지양 옮김)= '현존하는 최고의 비평가' 제임스 우드의 자전적 비평 애세이. 문학을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견디게 하는 힘으로 풀어낸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소설을 함께 돌아보며, 문학이 타인의 삶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깊고도 강력한 힘임을 지적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보여준다. 〈아를 1만7000원〉



를 바꿀 수 있다고 제안한다.
〈위즈덤하우스·2만7000원〉

▲교실의 언어(전현숙 지음)= '흥미', '성장', '학습자 중심 교육' 등 교실에서 흔히 쓰는 말들을 들여다보며 교육의 본질을 묻는다. 27년 경력의 현직 교사이자 교육인류학자인 저자는 익숙한 용어들이 어떤 교육철학을 담고 있고,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혼자 사례와 이론을 엮어 설명한다. 교사가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며 자신의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이끄는 교육 담론집이다. 〈장비교육·1만9000원〉

▲인간 본성의 역습(하비 화이트하우스 지음, 강주현 옮김)= 인류학자 하비 화이트하우스가 순응주의·종교성·부족주의라는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을 바탕으로 문명의 형성과 오늘의 위기를 해석한다. 이 본성들이 한때는 협력과 생존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기후 위기와 정치적 분열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하며, 동시에 그 본성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미래 〈현암사·2만3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 실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이 유쾌한 반전으로 이어진다. 경쟁보다 함께 노는 기쁨이 더 크다는 메시지를 사랑스러운 그림과 함께 전한다.
〈길벗아린이·1만4000원〉

▲여덟 살 린니의 경계랜드(최미나 지음, 송수혜 그림)= 여덟 살 린니와 친구들을 따라 놀이하듯 선택하고 계획하며 생활 속 경제를 익혀 간다. 소비와 저축, 가치의 개념을 일상의 경험과 이야기로 풀어 아이들이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끈다. '들썩들썩 경제 키즈카페'와 저축 약속장, 소원 지도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을 통해 돈의 가치와 쓰임을 능동적이고 즐겁게 몸에 익힐 수 있다.
〈파란자전거·1만4500원〉

창고 매매·임대

대지 920평

건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